도서관 밖에서 본 대학도서관의 명암(明暗)

도서관 사서나 학자들이 대학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할 때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있다. "대학의 심장은 대학도서관"이 그것이다. 대학 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도 여전히 도서관 관련 기사나 글에 시선이 가는 편이다. 얼마전 한국대학신문에 대학도서관의 법률적 근간 및 전담부서의 부재, 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인가 맹장인가'라는 칼럼[1]을 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수 십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주장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이 어떻게 변신하면 이용자로부터 환영받고 대학정책 결정권자에게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와 답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그 효과는 비교적 미미한 편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 내부의 시각을 위주로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필자가 도서관을 떠나 대학본부에 근무하면서, 즉 도서관 밖에서의 시각으로 대학도서관의 명암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존재감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잘해 온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번 지상블로그를 끝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몇 달에 겨우 한번, 모두 3번 쓴 글이였지만 원고 마감일은 항상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했다. 시원섭섭하다. 이 자리를 빌어 지상블로그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1) 곽동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인가 맹장인가," 한국대학신문(2011.8.22.),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99941〉, 〈인용 2011.10.22〉

자료, 건물 그리고 사서

자료의 힘, 아킬레스

최근 지식생산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한 출판량의 증가로 인하여 자료는 더욱 더 넘쳐나는 반면 대학재정의 긴축기조에 따른 자료수집 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대학도서관은 수집자료의 최적화에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장서로 인하여 존재감을 과시하여 왔다. 하지만 정작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어서(물론 대부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보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수십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라도, 이용자가 느낄 때는 도서관의 자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의 자료활용 패턴이 점점 도서관을 외면 또는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인터넷과 대형 포털사이트의 정보 제공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활동을 위한 정보원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선호 또한 결코 가볍지 않는데 특히 단행본이나 논문 등을 입수하고자 할 때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고[3] 한다.

때문에 대학도서관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수집자료의 최적화 못지않게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겠다. 하지만 수서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내부의 일정 절차(희망도서목록 수합, 복본조사, 구매 결재, 주문 → 대행사 업무소관 → 납품/검수 → 등록 → 정리(분류,목록) → 인수 → 대출부서로 인계)를 진행해야 하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경우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시간은 빨라야 10일, 늦으면 2-3주가 걸리기도 한다.

반면 이용자가 직접 서점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사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2-3일 만에 도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대학도서관의 자료입수 및 제공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희망자료는 얼마의 기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나?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도서관도 이용자도 환영할 일이지만 도서관에는 이른바 절차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료의 입수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요즘 모 TV 개그프로그램에서 애매한 것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이 화제다. 필자의 제안은 적어도 긴급(자료신청시 시스템에 긴급이라고 체크하는 방식)을 요하는 희망자료는 신청한 지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애정남의 말처럼 쇠고랑을 차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도서관에서 '희망자료 신청하면 늦어도 1주일내 제공' 해 준다면 이용자들은 크게 반길 것이다.

건물로서 도서관

간혹 대학도서관 사서 조차도 도서관의 입지나 위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우려가 있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 년 이내 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축,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는 해당도서관의 자료소장공간이 한계에 다달았거나 자료공간(자료실)과 열람공간(열람실)의 분리시도와 같은 전략적 선택, 그리고 새로운 도서관 이용패턴에 부합하는 공간,

3) 이은주, 이제환,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있어 도서관의 의미 : P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행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9), p.125.

예컨대 Information Commons[4]의 확대 개편 등의 사유 때문으로 사료된다.

주지하다시피 신세대로 대변되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 대학도서관은 '자료활용공간'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 최첨단 전자자료의 활용, 그룹스터디룸 등이 즐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새롭게 조망받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는 적지 않은 예산투자가 뒤따른다.

다음으로 도서관은 이용자의 쾌적한 학습환경이 유지되도록 냉난방 지원을 포함하여 전기, 환기 등의 여건이 교내 여타 건물에 비해 월등한 편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 매년 수 만권씩 증가하는 장서는 필연적으로 소장공간 증가와 서가 확대, 관리비용을 수반하고, 도서관 전산시스템의 관리나 유지, 개선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연구에 있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대학정책 결정권자 역시도 이런 이유로 도서관에 투자를 하였을 것이고, 그런 만큼 성과나 존재감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대학도서관은 이런 믿음에 확신을 제공해야 할 때다.

건물로서의 대학도서관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는 교내 타 기관과의 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컨대 대학도서관 내 적당한 공간에 글로벌 코너,[5] 취업 지원 공간,[6] 미술관 또는 박물관 전시공간, 편의시설(커피 또는 스낵공간) 확충도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는 고려할만 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서 대학도서관과 교내 타 기관의 교류가 가능하고 이는 결국 도서관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서의 역량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과 교육 및 연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대학직원 가운데 평균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면이 개별 업무나 이용자 서비스 등 업무 전반의 개선이나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는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서직원은 능력이나 근무연한에 비해 행정직원과 비교하여 승진이 비교적 늦고, 대학직원 사회에서 저평가되는 면이 있다. 또한 오랜 기간의 도서관 근무경력은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별한 동기부여 기회를 갖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라는 심각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필자가 앞선 2011년 7월 지상블로그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대학행정부서로의 인사이동'[7]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자에 들어 사립대학 도서관 사서가 대학행정부서로 이동하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정년 및 희망퇴직과 같은

4) 전통적인 장서 보유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폭넓어진 정보자원을 이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디지털 장비와 소프트웨어 및 공간을 제공하고 상시 직원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국내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도서관에 information commons 개념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줄여서 IC 또는 learning commons라고도 한다. 〈http://liberm.springnote.com/pages/194287〉, 〈인용 : 2011. 10. 18〉

5) 교내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국내학생 및 외국인학생이 상호 교류할 수 있고, 외국인 강사가 시간제로 지원되는 형태의 공간을 말함.

6) 과거에 많이 시도되었던 취업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비치하는 차원을 넘어서 취업 컨설턴트 내지 모의면접 등 취업에 관한 실질적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공간을 의미함.

7) 김지홍, "대학도서관 사서의 대학행정부서 인사이동 동향과 득실," 도서관문화, 제52권, 제7호(2011), pp.40-43.

인력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들 예컨대 입학자원의 감소, 교육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 입학생수의 급감, 대학 전반의 구조조정 분위기 심화 등의 위기감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사서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사기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서직원이 대학행정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은 대학이나 개별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우선, 대학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을 극도로 억제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직원규모가 큰 도서관의 사서직원을 대학행정부서에서 활용하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대학정책결정권자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대학행정직원의 시각에서 보면 '도서관은 여전히 방만하고 느슨한 조직'이라는 인식도 한 몫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대학행정부서와의 교류가 사실상 없어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 특히 행정직원 사이에는 존재감을 크게 어필하지 못하여 폐쇄적인 느낌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의 존재감 및 위상을 높이는 역할의 핵심은 사서이다. 물론 사서들은 반문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도서관의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시각은 도서관 밖에서 보는 것(특히 대학행정부서 직원)과는 온도차가 있는 편이다.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사서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나 핵심을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 살피고, 모쪼록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홍보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과 사서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혁신 이외는 마땅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 미시적으로는 자발적 학습 및 연구, 세미나, 워크숍, 재교육 등의 참여, 타 기관 및 대학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 더불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분야 주요 기관지 및 학회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참고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필자의 경험에 미뤄볼 때 그동안의 대학도

〈표 1〉 도서관 분야 주요 기관지 및 학회지 현황

구분	간행물명	발행처	간기	2011년
기관지	도서관문화	한국도서관협회	월간	http://www.kla.kr/business/publication/paper/tblPaper/list.asp?BBSCode=P0002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년간	http://www.nl.go.kr/pds/research_data/library.php
	사대도협회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연간	http://www.kpula.or.kr/public/societypaper/list.php
	정보관리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간	http://society.kisti.re.kr/sv/SV_svjscj02L.do?method=list&kojic=GGJBCP
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계간	http://society.kisti.re.kr/sv/SV_svjscj02L.do?method=list&kojic=DOTBB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http://society.kisti.re.kr/sv/SV_svjscj02L.do?method=list&kojic=MHJBB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계간	http://society.kisti.re.kr/sv/SV_svjscj02L.do?method=list&kojic=BBROBV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계간	http://society.kisti.re.kr/sv/SV_svjscj02L.do?method=list&kojic=JBGRBQ

서관 서비스나 제도가 거시적으로는 국가도서관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책 방향 및 각종 지표 등과의 연계성이, 내적으로는 대학본부의 비전, 전략, 정책 등과의 합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염려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도서관과 사서들의 개선노력이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이 모두가 사서들의 몫이다.

대학도서관의 존재감 높이기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료와 건물, 그리고 사서에 대해 필자가 도서관을 떠난 이후 느낀 점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명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창시절을 포함하여 어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흔히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 고 한다. 도서관은 지금껏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도서관이 '공부하는 곳' 이라는 틀을 넘어서 '도서관에 놀러 간다.' '친구 만나러 간다.' '시간 떼우러 간다.' '컴퓨터 하러 간다.' 등과 같은 다양한 연유로 도서관을 찾는 이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본다.

이를 위해서 대학도서관이 또는 사서가 해야 할 역할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존재감은 자료에서 출발한다고 감히 말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대학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은 대부분 부족하다.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집자료의 최적화와 더불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다면 늦어도 1주일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둘째, 도서관은 자료소장과 활용을 위해 적지않은 공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대학구성원 모두에게 편익과 안락함을 포함하여 존재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셋째, 사서가 느끼는 도서관의 가치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관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하지만 그 간극이 줄어들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미시적으로는 자발적 학습 및 연구, 세미나, 워크숍, 재교육 등의 참여, 타 기관 및 대학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거시적으로는 대학본부,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책 방향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학도서관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빈다.

글 | 김 지 홍
사서e마을 관리자
대구대학교 기획팀 계장
kjh1@daegu.ac.kr